



공부하는 편집자들이 있는 한  
에.디.터.십.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뿐.

editorship

( 부재하는 에디터십을 찾아 )

에디터십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출판문화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춘 편집자의 부재를 든다. 이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 아니다. 출판계는 전문적인 실무지식과 출판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춘 역량 있는 편집자군의 출현을 수 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하지만 출판계의 전문인력 부재현상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출판계의 한국병'으로 자리잡다시피 했다. 편집자가 공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메가 에디터십' 이니 '북 프로듀서' 니 하는 개념들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다행인 것은 근년 들어 공부하는 편집자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편집자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습하기 위해 스터디그룹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임은 나름대로 특유의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계속해 오고 있다.

( **홍대 앞 커피숍 상 파울로에 모인 편집자들** )

기자가 찾은 곳은 '인문학편집자모임' 중 하나인 철학분과 소모임. 이 모임은 인문서를 편집하는 편집실무자들이나 철학에 관심이 깊은 편집기획자들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회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특정한 텍스트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다. 기자가 찾았던 날은 라캉의 '주체와 무의식'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이 텍스트로 삼은 책은 《철학의 외부》(그린비, 이진경 지음). 모임은 회원 한 사람이 발제를 해서 주제발표를 한 후 질의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라캉 철학의 특질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쑤(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명제와 변별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 “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을 관통하는 조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주체의 지각이랄 수 있는데, 라캉에 이르러서 회의가 생겼지요.” ||||| “서양철학사에서 데카르트를 넘어서는 지점에 프로이트와 야콥슨이 서 있는데, 라캉은 프로이트에게서는 무의식의 개념을, 그리고 야콥슨에게서는 구조주의를 빌려 왔죠.” ||||| “라캉은 무의식의 개념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무의식이란 라캉 식으로 말하면 기표와 나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수만큼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무의식의 창조적인 작업, 미학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얼핏 들으면 흡사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학술토론으로 여길 만하다. 그만큼 모임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은 진지하면서도 치열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들녘출판사에서 인문교양팀장으로 있는 김찬 씨, 해냄출판사 편집부의 박은미 씨, 돌베개 문화예술팀의 김윤정 씨, 형설출판사 편집부의 안덕희 씨, 들녘출판사 인문교양팀의 안광일 씨, 그리고 편집경력자인 정일웅 씨 등이다.

현재 철학분과 소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찬 씨(31)다. 그는 이 모임의 장점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주고

받는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든다.

“우리 모임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하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그 과정에서 동업자로서의 동류의식과 기획편집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게 되죠.”

그가 철학분과 소모임을 시작한 것은 인문학편집자로서 인문학의 기본이랄 수 있는 철학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인문서 편집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의 함양’이라는 수요가 스티디 모임의 학습이라는 공급을 창출해 낸 것.

“인문학 책을 편집하다 보면 철학 전문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철학적 지식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모임에서 첫 번째로 기대했던 것은 인문학편집자로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된 관심을 가진 편집자들끼리 모여서 출판계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었죠. 소모임은 이런 동기에서 시도된 것이에요.”

이 모임의 또 다른 구성원인 안덕희 씨는 모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원래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체에 다가서기보다는 본질을 감추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는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미땅한 모임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편모’ 게시판에서 철학분과 소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시간을 넘긴 모임은 근처 호프집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출판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는데, 출판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왼쪽에서부터 안덕희 씨, 정일웅 씨, 김윤정 씨.



왼쪽에서부터 박은미 씨, 안광일 씨, 김찬 씨.

### ( 철학분과 소모임의 뿌리 )

철학분과 소모임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편집자 모임의 한 갈래다. 인문학편집자 모임의 덩치가 커지게 되자 회원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헤쳐모인 것. 현재 인문학편집자 모임은 예술분과, 역사분과, 철학분과로 세분화돼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인문학편집자 모임이 시작된 건 1999년 초다. 푸른숲에서 인문서를 편집하던 선완규 씨(현재 휴머니스트 편집장)와 백의출판사의 신희영 씨, 해냄의 이해진 씨 등이 의기투합하여 인문학편집자 모임을 만들었다. 선완규 씨는 당시 모임이 결성될 때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소박한 동기에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임을 하면 할수록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들은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참 열정적으로 모임에 임했어요. 그때 주로 모이던 곳은 푸른숲 사무실이었죠. 학습모임을 하는 동안 편집자로서 정말 모르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모임이 점점 커져 넓은 그늘을 만들어 그 밑으로 후배들이 몰려들었다. 그 결과 지금은 분과 모임이 생길 정도로 모임이 활성화됐다. 선완규 씨는 지금도 가끔 모임에 참석해 후배 편집자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들의 참신한 의견도 경청한다. 그는 인문서 편집자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문학은 모든 출판아이템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요.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죠. 하지만 인문서를 편집한다고 해서 어깨에 괜한 힘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명분과 실리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실리 속에서 또 다른 의미의 실마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에디터십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에디터십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

서 인문학편집자 모임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에디터십의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것은 관리자 그룹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과거에 필요한 에디터십이 존재했고, 현재는 현실이 요구하는 에디터십이 있는 것이죠. 에디터십의 부재를 지적하는 대신에 그것을 만드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 ( 그 밖의 모임들 )

인문학편집자 모임 이외에도 공부하고 토론하는 편집자들의 모임은 많다. 2주에 한 번씩 신촌 책사랑방에서 모임을 갖는 ‘편집 실무학습모임’은 말 그대로 편집실무를 공부하는 편집자들의 모임이다. 출판사 경력 2, 3년차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모임은 기획과 편집 면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책을 선정, 그것을 텍스트 삼아 편집기획의 실무를 스터디한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 책의 기획자를 초청해 기획실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이 외에도 경제경영 분야의 편집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경제경영 편집자 모임’, 저작권을 공부하는 ‘저작권 연구모임’, 아동물편집자들의 스터디 모임인 ‘아동물 편집자 모임’, 그리고 교정교열을 공부하는 ‘교정교열 연구모임’ 등도 현재 활발하게 조직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편집자는 편집자들의 커뮤니티인 [www.bookeditor.org](http://www.bookeditor.org)에 접속하고 ‘출판동호회’ 게시판에 들어가 가입의사를 밝히면 된다.

공부하는 편집자들이 많다는 것은 한국출판의 미래에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에디터십은 오로지 깊은 회의와 고민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이들 모임은 보여준다.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한” 지식이란 편집자에게도 예외 없이 쓸모가 없는 것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